

몽골 창업가들의 창업동기,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성과간의 관계: 성별 차이*

Delgermaa Otgon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강신형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박상문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Effects of Mongolian Startup's Motivati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Performance: gender differences

Delgermaa Otgon^a, Shin-Hyung Kang^b, Sangmoon Park^c

^a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c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2, Revised 15 December 2022, Accepted 23 December 2022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the performance of Mongolian entrepreneur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a survey on 236 entrepreneurs in Mongolia and investigate research hypotheses by empirical analysis.

Findings - It was found that entrepreneurial motivation (independence, opportunity-driven, achievement motiv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tartups' performances, and necessity-driven motiv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rtups' performanc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of startups. There are differences by gender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ntrepreneurial motivations and startup performanc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the performance of startups in Mongolian.

Keywords: Entrepreneurial Motivation,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JEL Classifications: L26, M13, L20

I. 서론

최근 세계 어디서나 창업의 전성시대라고 불리는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시작하고 있다. 창업 많아지는 이유는 고용시장의 경기 위기, 불안과 취업난, 실업이 증가하며 국가차원에서 창업가 육성이나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신시장 개척, 기술발전과 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은 Delgermaa(2020)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a First Author, E-mail: deegii8441@gmail.com

^b Co-Author, E-mail: sh.kang@cnu.ac.kr

^c Corresponding Author, E-mail: venture@kangwon.ac.kr

© 2022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창업가 특성과 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신흥국들에서도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에서의 창업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Burton, Ahlstrom and Obloj, 2008; Foo, Vissa and Wu, 2020). 신흥국가들에서의 기업가정신이나 창업 관련 연구들은 시장규모나 경제적 영향력이 큰 BRICs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시장규모나 경제발전 수준이 미흡한 국가들에서의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국가들마다 자국내 창업생태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내 기업가정신과 인프라 특성을 고려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Cao and Shi, 2021) 다양한 신흥국가별 상황에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성별에 따른 기업가정신 발현과 추구 특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창업자들은 남성 창업자들에 비해 기회추구, 자금집근, 네트워크와 같은 사업적 관점 뿐만 아니라 독립과 자율성, 일-가정 균형을 위한 심리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Hughes, Jennings, Brush, Carter and Welter, 2012; Jennings and Brush, 2013; Yadav and Unni, 2016).

본 연구에서는 신흥국가인 몽골 상황에서 창업가들의 다양한 특성들이 창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는 선진국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의 신흥국가 창업가들로의 일반화 가능한지 아니면 신흥국 창업가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미흡하다. 신흥국가들의 입장에서 자국 창업가들의 육성하고자 성공촉진에 있어서 선진국의 경험과 지식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국내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지와 같은 실무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창업동기,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지향성과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창업동기,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지향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장에서는 선행연구 영역으로 창업성과와 여러 영향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모형 및 가설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론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 및 변수측정을 포함한 주요 연구방법들을 기술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주요 실증분석 결과들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요 연구결과의 의의와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창업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러한 창업활동을 통해 창업자가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창출에서부터 본인이 생각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치실현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창업활동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존 기업들에 대한 성과 연구들은 대부분 재무적 성과수준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의 성과나 경영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창업기업들은 초기 경영성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도 존재하며, 창업이후 상당기간 동안 재무적으로 미흡하더라도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경제적 가치창출의 목적을 넘어 사회적 가치실현을 중요한 경영목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재무적 성과관점에서 해당 기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 기업과 같은 형태들로 존재한다. 이러한 창업기업들의 다양한 창업목적이나 사업분야 특성으로 인해 창업 기업들의 성과 측정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객관적 재무적 성과 관점뿐만 아니라 창업 만족도나 목표달성도 등과 같은 여러 기준에 의한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오혜미, 이창영, 김진수, 2014; 유승욱, 2019).

기존 창업기업들의 성과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요인들과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략경영 관점에서의 시장특성이나 기업내부 자원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에서부터 창업가들의 심리적 및 행태적 특성들의 영향관계까지 다양한 이론적 관점으로 창업기업들의 성과영향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신흥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원이 희소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워 창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경우들이 많다(Burton,

Ahlstrom and Obloj, 2008; Cao and Shi, 2021; Foo, Vissa and Wu, 2020). 이러한 신흥국가들의 환경적 및 제도적 특성은 창업가 개인의 창업관련 인식과 창업과정에서의 의지와 노력이 창업과정과 창업 이후 성과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흥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는 창업기업들의 성과영향요인들중에서 창업자의 심리적 및 인지적 특성요인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창업가들의 심리적 및 인지적 특성요인으로 창업동기, 자기효능감, 기업가지향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 성과간의 관계들을 분석하였다. 이병권, 전인오(2014)은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대상으로 독립변수 창업동기요인(자기효능감, 창업교육, 인적 네트워크, 경제 요인, 사회 인식 및 정부 정책)이 창업성과 (창업의지(예창업자),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기술성과(기창업자))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창업동기요인(자기효능감, 경제요인, 인적네트만)과 창업성과 간 관계, 기업가정신과 창업성과간의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오혜미, 이창영, 김진수(2014)는 심리적, 환경적과 개인적 특성, 창업동기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창업효능감을 4단계로 나누고 탐색, 계획, 집결, 실행단계로 살펴봤던 것을 강조한다. 실행단계 창업효능감은 창업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지며 창업동기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혁, 박우진, 배병윤(2019)은 독립변수들인 창업동기(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창업가정신(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역량특성 (기술적역량, 전략적 사고역량, 조직적 역량), 종속변수인 지속가능성(경제, 사회, 환경) 및 매개 변수로 경영성과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성취동기, 창업가정신 및 역량특성은 경영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이선협, 안은재(2019)는 여성창업자의 창업동기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지를 매개 변수로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동기 중에서 보상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성취동기는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효과로 유의한 정(+)의 영향, 환경동기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또한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지는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 영향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가설

1. 창업동기와 창업성과간의 관계

창업의 활성화와 기업가지향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업을 하는 동기를 파악이 중요하다. 창업 동기는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Begley and Boyd, 1987; Carsrud and Brannback, 2011). 창업동기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창업가들은 독자적으로 일을 하고 싶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높은 통제력을 얻기 위한 동기나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동기에서 창업을 하려는 것으로 경향을 보인다(Shane, Kolvareid and Westhead, 1991).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임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인식한 창업가들은 스스로 인식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가가 되기도 한다(이재석 & 이상명, 2015; 이지석, Xudapeng, 2010).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창업가들은 돈, 권력 및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재적 요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관심사를 추구하면서 얻게 되는 만족감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에 의해 동기부여 되기도 한다(Carsrud and Brannback, 2011).

일자리부족과 구조조정으로 (재)취업, 실업, 은퇴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전병유, 2003). 생계형 창업은 창업자의 생계를 위한 선택적 창업과 달리 창업의지나 개인적 특성과는 관계없이 창업이 실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창업가들이 추구하는 사업기회 성격에 따라 기회형 창업가(opportunistic entrepreneur)와 생계형 창업가(necessity entrepreneur)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회형 창업가들은 주로 경제적 요인이나 부가적인 이익창출 및 새로운 가치실현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반면, 생계형 창업가들은 가족과 본인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수입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고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Carsrud and Brannback, 2011).

성공적인 창업가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성취 욕구는 주요 성공요소로서 간주되어 왔다(McClelland, 1961). 성취 욕구가 높은 개인일수록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창업에 대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박시사, 강성일, 2007), 다ichter 성취욕구는 창업 또는 창업의지와의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rueger, 1993; 이지우, 2000), 창업자의 성취 지향적 성향이 창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창업자들은 다양한 동기요인들에 의해 창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동기요인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창업과정을 극복하고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H1-1 독립 동기와 창업성과는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 H1-2 기회형 동기와 창업성과는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 H1-3 생계형 동기와 창업성과는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 H1-4 성취 동기와 창업성과는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2.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간의 관계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기 및 인지자원, 행동과정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93).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특정과업을 수행하고자하는 주체의 자신감과 개인의 경력 선택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오랜 시간 연구되어온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Wilson et al., 2007).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 같이 일반상황에 적용되는 요인이 아닌 주어진 과업상황에 맞서 그것을 통제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져왔다(Bandura, 1997). 또한 자기효능감은 목표 설정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을 위해 그 목표에 도전하는 성향을 보인다(Bandura, 1982; Latham and Locke, 1991).

자기효능감은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과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자원, 기술, 역량을 모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과거의 경험과 예상된 미래의 장애물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Gist and Mitchell, 1992), 선택, 노력, 인내 등에 영향을 준다(Cox, Muller and Moss, 2002). 강영욱, 하규수(2012)는 자기효능감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선량과 허철무(2019)는 예비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창업효능감이 기업가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창업가들이 불확실한 창업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분과 창업과정을 통해 직면하게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창업을 수행함으로써 높은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H2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는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3.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성과간의 관계

기업가지향성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혁신적이고 진취적으로 활동하여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가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Miller 1983, Covin and Slevin, 1991). 기업가지향성은 대표적으로 혁신성, 능동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창업가로 하여금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기회를 식별하고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창업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창업가적 전략을 수립하게 만든다. Lumpkin and Dess(2001)은 기업가지향성을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경쟁적인 저돌성, 자율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과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기업가지향성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중요한 요소임이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다.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Keh, Nguyen and Ng, 2007; Frishammar and Horte, 2007). Keh, Nguyen and Ng(2007)은 기업가지향성이 중소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Li et al. (2006)과 Frishammae and Horte (2007)의 연구에서도 기업가지향성이 신제품 개발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Zahra and Covin(1995)은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의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재무성과는 자산수익률 (Return On Assets: ROA), 매출액수익률 (Return On Sales; ROS), 매출성장률 (Growth in Revenue: GR)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Casillas, Moreno and Barbero (2010)는 Lumpkin and Dess (2001)의 연구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혁신성과 진취성이 기업의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지향성은 창업가들로 하여금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통해 사업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지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지향성은 창업관련 전반적인 자원 확보 가능성이나 사회적 여건이 미흡한 신흥국가에 있어서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더욱 중요할 수 있다.

H3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성과는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4. 성별에 따른 창업성과 영향요인의 차이

창업에 대한 기존연구들에서 창업가들은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되었고 여성들의 기업가정신도 함양되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오혜미, 이창영, 김진수, 2014). 여성들을 창업으로 이끄는 요인들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추진(push) 요인으로는 욕구불만, 직무불만족, 이전 직무의 지루함과 사직 등이 있으며, 유도(pull) 요인으로는 독립성, 자율성, 교육 등이 있다(Okafor and Amalu, 2010).

창업가들은 창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Cox et al., 2002). 또한 창업가들이 추구하는 기회들에 대해 주변이나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 창업가들은 남성 창업가들과 달리 사회적 자본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킹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 기회추구를 통한 성과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 창업가들이 남성 창업가들과는 상이한 창업동기와 창업성과 영향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H4. 성별에 따라 창업동기,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지향성이 창업성과와의 영향관계가 다를 것이다.

IV. 연구방법론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몽골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몽골 수도인 울라바토르시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조사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총 280부의 설문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자료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6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들의 분포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Sample Distribution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	84	35.6 %
	여	152	64.4 %
연령대	25세 미만	19	8.1 %
	26-35세	85	36.0 %
	36-45세	79	33.5 %
	46-55세	46	19.5 %
	56세 이상	7	3.0 %
학력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4	18.6 %
	전문대 졸업	19	8.1 %
	대학 졸업	128	54.2 %
	대학원 이상	45	19.1 %
창업경험	경험 있음	109	43.1 %
	경험 없음	127	53.9 %
합계	236	100 %	

2. 변수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창업기업의 성과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창업기업들은 객관적인 재무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창업가들이 인지하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측정하였다(강한혁, 박우진, 배병윤, 2019; 안태욱, 강태원, 2019; 오혜미, 이창영, 김진수, 2014).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요인성분									신뢰도
	1	2	3	4	5	6	7	8	9	
S-Efficacy4	.834	.110	.154	.102	.099	.206	.124	-.005	.084	.884
S-Efficacy2	.810	.151	.157	.030	.075	.166	.099	.057	.076	
S-Efficacy3	.744	.152	.171	.199	.081	.033	.164	-.119	.133	
S-Efficacy5	.692	.235	.027	.113	.044	.221	.177	-.004	.054	
S-Efficacy1	.611	.249	.163	.260	.157	.060	.133	-.019	.146	
E02	.189	.706	.099	.098	.179	.113	.204	-.085	.106	.866
E05	.331	.681	.330	.122	.029	.126	.117	-.041	-.003	
E06	.055	.658	.200	.170	.194	.131	-.116	.216	.144	
E03	.285	.629	.227	.045	.133	.344	.017	.004	.173	
E01	.129	.617	.135	.192	.237	-.024	.169	-.049	.372	
E04	.367	.570	.271	.175	.062	.255	.149	-.066	.011	
NFPerf7	.206	.177	.819	.076	.147	.059	.014	-.012	.126	.862
NFPerf8	.069	.187	.760	.109	.178	.103	.174	.016	.006	
NFPerf6	.223	.249	.732	.180	.147	.034	.068	.053	.153	
NFPerf5	.136	.170	.697	.016	.221	.161	.019	.088	.282	
Mot4	.230	.141	.141	.794	.011	.015	.112	.022	.194	
Mot3	.218	.189	.126	.762	.159	.080	.110	.055	.182	.838

Mot2	.001	.020	.040	.690	.189	.298	.098	.215	.117	
Mot1	.165	.203	.073	.678	.089	.152	.244	.143	.064	
FPerf4	-.049	.076	.121	.123	.870	.036	.100	.036	.007	.831
FPerf3	.061	.153	.208	-.008	.784	.098	.001	.078	.058	
FPerf2	.233	.170	.226	.167	.677	.035	.180	-.140	.044	
FPerf1	.226	.160	.083	.142	.676	-.016	.108	.041	.242	
E08	.238	.165	.064	.074	.000	.803	.068	.042	-.062	.804
E09	.277	.158	.160	.051	.091	.762	.131	-.043	.128	
E07	.072	.135	.075	.293	.049	.738	.023	-.024	.101	
IND2	.240	.175	-.069	.071	.022	.122	.771	-.101	.151	
IND3	.047	.003	.118	.168	.218	.159	.738	.218	-.047	.749
IND4	.293	.289	.186	.228	.045	-.186	.590	.007	.107	
IND1	.257	-.002	.173	.178	.130	.086	.537	-.026	.275	
NESS5	-.045	.018	.025	.073	-.011	-.028	-.060	.861	.036	.753
NESS4	-.071	.006	-.004	.048	-.074	-.048	-.053	.854	.052	
NESS6	.073	-.052	.064	.166	.156	.069	.270	.662	.098	
OPP1	.147	.220	.115	.210	.136	.019	.137	-.037	.729	.680
OPP2	.019	.080	.093	.253	.178	.193	.005	.348	.645	
OPP3	.177	.125	.232	.090	-.002	.016	.145	.081	.628	
고유값	11.372	2.832	2.317	1.933	1.655	1.448	1.208	1.155	1.063	
분산설명(%)	31.588	7.866	6.436	5.370	4.599	4.023	3.356	3.209	2.952	
누적설명(%)	31.58	39.45	45.88	51.26	55.85	59.88	63.23	66.44	69.39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창업동기,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지향성을 측정하였다. 창업동기는 창업자들로 하여금 창업을 추진하거나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독립동기, 기회형동기, 생계형동기, 성취동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강한혁, 박우진, 배병윤, 2019; 선량, 허철무, 2019; Lee 2006; 오혜미, 윤남수, 2012; 이창영, 김진수, 2014).

또한 자기효능감은 특정 목적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항목들로 측정하였다(박창기, 김창완, 2018; 이종건, 김현청, 안태향, 2014). 기업가지향성은 창업성과를 위한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성취하기 위한 창업가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따른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측정하였다(Miller, 1983; Covin and Slevin, 1991; 박지유, 양혜술, 2014; 안태욱, 강태원, 2019).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는 창업가의 연령, 학력수준 및 창업경험을 특정하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과 같으며 각 변수들은 모두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3>에는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1 독립동기	1							
2 기회형동기	.392	1						
3 생계형동기	.118	.267	1					
4 성취동기	.482	.507	.259	1				
5 자기효능감	.515	.382	.003	.448	1			
6 기업가지향성	.439	.470	.044	.520	.633	1		
7 재무적 성과	.373	.361	.071	.366	.349	.434	1	
8 비재무적 성과	.361	.445	.103	.367	.459	.577	.474	1
평균	3.962	3.371	2.641	3.683	3.778	3.639	3.982	3.814
표준편차	.75	.84	.44	.49	.47	.41	.46	.50

IV. 분석결과

1. 창업동기,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성과간의 관계 분석결과

창업동기와 창업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창업동기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 동기($\beta=.251, p<0.001$), 기회형 동기($\beta=.159, p<0.01$), 성취 동기($\beta=.187, p<0.05$)는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계형 동기는 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창업동기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 동기($\beta=.214, p<0.001$), 기회형 동기($\beta=.276, p<0.001$), 성취 동기 ($\beta=.155, p<0.001$)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생계형 동기는 비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beta=.352, p<0.001$)를 미치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비재무적 성과간의 영향에서도 유의한 정의 영향($\beta=.486, p<0.001$)을 미치고 있다.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6>와 같다. 기업가지향성이 창업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beta=.430, p<0.001$)를 미치고 있다. 기업가지향성과 비재무적 성과간의 영향에서도 유의한 정의 영향($\beta=.602, p<0.001$)을 미치고 있다.

2. 성별에 따른 창업성과 영향요인 차이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창업가의 창업동기,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창업동기와 창업성과간의 영향관계는 다음과 같다. 몽골 남성 창업가의 경우에는 창업동기중에서 기회형 동기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beta=.33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몽골 여성 창업가들의 경우에는 독립 동기가 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beta=.228, p<0.01$)를 보이고 있다. 창업동기와 비재무적 성과간의 관계에서는 몽골 여성 창업가들의 경우에는 독립 동기가 비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beta=.171, p<0.01$), 기회형 동기가 비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beta=.207, p<0.01$)를 보이고 있다. 몽골 남성 창업자의 경우에는 창업동기와 비재무적 성과간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Results on Relationships Between Motivation and Performance

구분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성별 (남=0, 여=1)	-.002	.979	-.065	.270	
통계변수	연령	-.012	.841	.035	.551
	학력	.029	.625	-.004	.939
	창업 경험	.218***	.000	.186**	.002
	독립 동기	.251***	.000	.214**	.002
독립변수	기회형 동기	.159**	.025	.276***	.000
	생계형 동기	-.059	.333	-.038	.528
	성취 동기	.187*	.011	.155**	.030
	N	236		236	
R 제곱	.258		.291		
수정된 R 제곱	.232		.266		
F 값	9.872***		11.649***		

* $p<0.05$, ** $p<0.01$, *** $p<0.001$

기업가지향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몽골 여성 창업가의 경우 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정의 영향($\beta=.344, p<0.01$), 비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정의 영향($\beta=.375, p<0.01$)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성 창업가의 경우에는 기업가지향성이 비재무적 성과와는 유의한 정의 영향($\beta=.440, p<0.01$)을 보이나 재무적 성과와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Results on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구분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통제변수	성별 (남=0, 여=1)	-.019	.764	-.115	.055
	연령	-.051	.413	-.006	.922
	학력	.003	.955	-.021	.720
	창업 경험	.218***	.000	.209***	.000
독립변수	자기효능감	.352***	.000	.486***	.000
N		236		236	
R 제곱		.168		.267	
수정된 R 제곱		.150		.251	
F 값		9.284***		16.761***	

* $p<.05$, ** $p<0.01$, *** $p<0.001$

Table 6. Results on Relationships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구분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통제변수	성별 (남=0, 여=1)	.003	.956	-.085	.119
	연령	-.003	.963	.063	.257
	학력	.061	.316	.060	.265
	창업 경험	.162**	.007	.131**	.015
독립변수	기업가지향성	.430***	.000	.602***	.000
N		236		236	
R 제곱		.216		.370	
수정된 R 제곱		.199		.356	
F 값		12.681***		26.974***	

* $p<.05$, ** $p<0.01$, *** $p<0.001$

Table 7. Results on the Different Relationships by Gender

	구분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통제변수	연령	.004	.014	.025	.064	.018	.065
	학력	.059	.182	.022	.053	.056	.055
	창업 경험	.194***	.267**	.170**	.142**	.182	.114
	독립 동기	.199**	.132	.228**	.095	-.006	.171**
독립변수	기회형동기	.104	.335**	-.036	.164*	.116	.207**
	생계형동기	-.030	-.153	.039	.026	-.038	.055
	성취 동기	.109	.035	.136	-.005	-.006	-.018
	자기효능감	.036	.212	-.088	.135	.144	.098
	기업가지향성	.217**	.125	.344**	.401***	.440***	.375***
	N	236	84	152	236	84	152
R 제곱		.291		.402		.288	
수정된 R 제곱		.259		.330		.243	
F 값		9.215***		5.534***		6.396***	
				16.700***		4.572***	
						14.960***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 $p<.05$, ** $p<0.01$, *** $p<0.001$

V. 토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몽골 창업가들 대상으로 창업동기, 자기효능감, 기업가지향성이 창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영향관계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동기 중에서 독립 동기, 기회형 동기, 성취동기는 창업성파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창업동기들이 창업 성파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몽골의 창업가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선행 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몽골 창업가의 경우 생계형 동기요인은 창업성파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생계형 동기요인은 다른 동기요인과 같이 자발적인 동기요인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차선책으로서의 창업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창업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 극대화나 본인의 일에 대한 자긍심이나 만족감을 충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이 창업성파와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이 재무적 성과나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있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신흥국가인 몽고의 창업가들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이 창업성파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줌으로써 해당 요인들이 창업가의 중요한 특성이면서 창업기업의 성과창출에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몽골 창업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창업동기와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성파간의 영향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몽골 남성들의 경우에는 기회형 동기요인이 중요한 창업성과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성 창업가들의 경우, 창업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이 중요한 동기요인임을 의미한다. 반면, 몽골 여성 창업가들의 경우에는 독립동기와 기업가지향성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몽골 여성들은 남성보다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갖고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이 높으며,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싱글맘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정들도 증가하는 현상과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몽골 부모들을 아들보다 딸을 더 많이 대학교 진학시키는데 이는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는 잠재적 역량개발을 통해 몽골 여성 창업가가 몽골 남성 창업가들보다 창업기회 인식이나 창업을 통한 독립과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동기 요인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러 창업동기요인들이 자기효능감이나 기업가정신을 통해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창업동기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반적으로 창업관련 인프라나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신흥국가의 경우, 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창업환경이나 창업자들이 부족한 신흥국가들의 경우, 창업가들의 창업동기 요인들이 이들의 생존과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업지원정책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창업가들의 경우, 남성 창업가들에 비해 독립동기가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이해하고 향후 독립지향적 여성 창업가들을 위한 창업프로그램 및 지원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창업가의 다양한 특성요인을 심리적 특성 요인중 일부로 한정시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창업성파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확보, 경쟁우위, 사업전략과 같은 창업기업 수준의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창업가 특성 요인과 창업기업의 기회특성과 사업전략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국가에 초점을 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몽골의 울란바타르시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특정국가와 특정도시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국가나 지역과 산업을 포함한 대규모 표본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창업성파나 영향요인들의 생존과 같은 장기성파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화나 시차를 고려한 성과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강영욱, 하규수 (2012), “소상공인 창업자특성과 창업준비과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0(9), 239-251.
- 강한혁, 박우진, 배병윤 (2019), “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가 역량특성이 창업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 경영성과를 매개로 하여”, *벤처창업연구*, 14(3), 59-71.
- 박사사, 강성일 (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 박지유, 양혜술 (2014),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2), 97-107.
- 박창기, 김창완 (2018), “소상공인의 사회적 자본이 자기효능감, 창업의지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3(2), 1~28.
- 선량, 허철무 (2019),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변수의 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117~137
- 안태욱, 강태원 (2019),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적역량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4), 29-49.
- 오혜미, 이창영, 김진수 (2014), “여성창업가의 심리적, 환경적, 개인적 특성이 창업동기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2), 45-60.
- 유승욱 (2019), “창업가 특성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창업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165-178.
- 윤남수 (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이병권, 전인오 (2014), “창업동기요인이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6), 213-230.
- 이선현, 안은재 (2019), “여성창업자의 창업동기가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지를 매개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3(6), 95-112.
- 이재석, 이상명 (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이지석, Xudapeng (2010),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 비교분석”, *아태비즈니스연구*, 1(2), 65-82.
- 이종진, 김현철, 안태항 (2014), “자기효능감과 기업성과: 창업지향성과 창업경험의 역할”, *경영학연구*, 43(2), 561-586.
- 이지우 (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 전병유 (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149-179.
- Delgermaa (2020), 몽골 창업가의 창업동기,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A. (1997), “The anatomy of stages of change”,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AJHP*, 12(1), 8-10.
- Begley, T. M. and D. P. Boyd (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79-93.
- Bruton, G. D., D. Ahlstrom and K. Obloj (2008),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economies: Where are we today and where should the research go in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2(1), 1-14.
- Cao, Z. and X. Shi (2021),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Small Business Economics*, 57(1), 75-110.

- Carsrud, A. and M. Brännback (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9-26.
- Casillas, J. C., A. M. Moreno and J. L. Barbero (2011),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family firms: Family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Journal of Family Business Strategy*, 2(2), 90-100.
- Covin, J. G. and D. P. Slevin (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6.
- Cox, L. W., S. I. Mueller and S. E. Moss (2002),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2), 229-245.
- Foo, M. D., B. Vissa and B. Wu (2020),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economies",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4(3), 289-301.
- Frishammar, J. and S. Åke Hörte (2007), "The role of market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for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in manufacturing firm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9(6), 765-788.
- Gist, M. E. and T. R. Mitchell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 Hughes, K. D., J. E. Jennings, C. Brush, S. Carter and F. Welter (2012), "Extending women's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new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3), 429-442.
- Jennings, J. E. and C. G. Brush (2013), "Research on women entrepreneurs: challenges to (and from) the broader entrepreneurship literature?",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7(1), 663-715.
- Keh, H. T., T. T. Nguyen and H. P. Ng (2007),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marketing information on the performance of S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4), 592-611.
- Krueger, N. (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 Latham, G. P. and E. A. Locke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12-247.
- Lee, S. S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Motivation,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 in Women Owned Busines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28(4), 45-64.
- Li, Y., Y. Liu and Y. Zhao (2006), "The role of market and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and internal control in the new product development activities of Chinese firm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5(3), 336-347.
- Lumpkin, G. T. and G. G. Dess (2001), "Linking two dimension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o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 and industry life cyc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5), 429-451.
- McClelland, D. C. (1961), *Achieving society*, Simon and Schuster.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Okafor, C. and R. Amalu (2010), "Entrepreneurial Motivations as Determinants of Women Entrepreneurship Challenges", *Petroleum-Gas University of Ploiesti Bulletin*, 62(2), 67-77.
- Shane, S., I. Kolvareid and P. Westhead (1991),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the reasons leading to new firm formation across country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6), 431-446.
- Wilson, F., J. Kickul and D. Marlino (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Yadav, V., & Unni, J. (2016), "Women entrepreneurship: research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6(1), 1-18.
- Zahra, S. A. and J. G. Covin (1995), "Contextual influences on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performance relationship: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1), 43-58.